곡성 기차마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박차'

특화상품 칙칙폭폭 도시락·밀키트 등 변화 시도

전통시장 내 일정 금액 구입땐 사은품 등 이벤트도

곡성군과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상인회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나선다. 사진은 뚝방마켓(왼쪽)과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모습. 〈곡성군 제공〉

곡성군과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상인회가 기차마을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곡성군에 따르면 기차마을시장을 중심으로 읍내 상권과 섬진강 기차마을, 뚝방마켓, 동화정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 중이다.

곡성군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특화 상품인 '칙칙폭폭 도시락'과 '밀키트', '캠핑꾸러미 상품', '시장 상품 소분화', '패키지 포장' 등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인회 주관으로 '사은품 증정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관광특화시장으로의 변화를 위해 '기차마을시장 상인회'와 '칙칙폭폭협동조합'이 함께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통시장 내 전 품목 대상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캐릭터 팬시노트', 5만원 이상은 '캐릭터 머그컵',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100년 전통 맛집인 '한일순대국밥' 식권을 선착순 30명에게 증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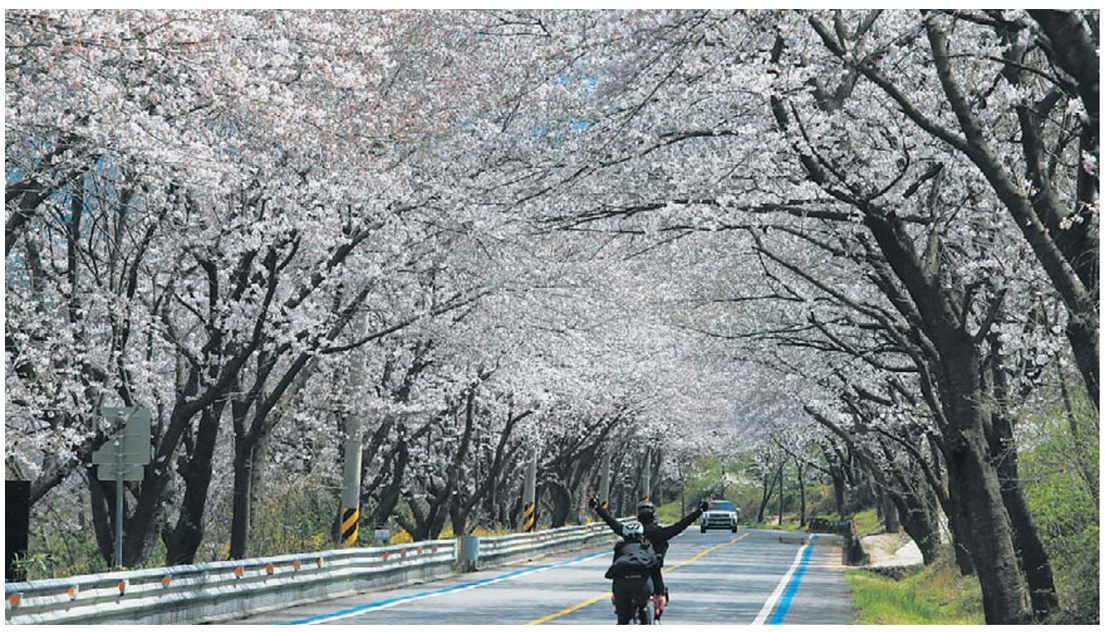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주말 기차마을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향후 주말 시장과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영수 곡성 기차마을시장 상인회장은 "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고객들의 참여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앞으로 좀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기차마을 시장이 친근하고 재미있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상인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은 기차마을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정책으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차마을시장은 2023년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에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곡성군과 함께 특화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OTO홍보, 테마축제 개최, 특화공간조성 등을 추진하면서 관광특화시장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곡성=김영필 기자



구례 300리 벚꽃길 예상치 못한 꽃샘추위로 벚꽃 개화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구례 섬진강변 일대에 벚꽃이 30%가량 꽃망울을 터트렸다. 전국에서 가장 긴 300리 벚꽃길이 조성된 구례군에는 이번 주말부터 다음주까지 벚꽃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례군 제공〉

장성군,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 지원 방안 논의

보건소·장성병원·경찰·소방서 등 유관기관 간담회…협력체계 구축

장성군은 "최근 장성군 보건소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보서 장성보건소장, 고명숙 장성병원 이사장, 조진석 공중보건의사 대표, 전병현 장성경찰서장, 이달승 장성소방서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응급의료사업 협력 체계 ▲비상진료대책 및 응급의료 지원 방안 ▲응급환자 이송체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한 폭 넓은 대책 사항을 논의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화순군, 행정력·예산 낭비 업무 폐지… '시책 일몰제' 시행

화순군은 28일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업무를 발굴·폐지하는 '시책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일몰 대상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이나 민원이 가중되는 시책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전례·답습적 반복 업무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타 부서와 중복 추진으로 일원화가 요구되는 업무 등이다.

시책 일몰제를 통해 각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시책·사업·제도 등을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해 다음 달까지 일몰 대상을 발굴하고 자체 일몰 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굴한 시책에 대해 폐지·개선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시책 일몰제를 통해 확보한 행정력과 예산을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활용하면 업무 추진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담양교육지원청, 학교경영 강화

관내 학교장 26명과 연찬회 개최

담양교육지원청은 "최근 관내 초·중·고 학교장 26명과 '학교경영 역량 강화 학교장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이날 연찬회는 '담양의 3향(의향(義鄕), 예향(藝鄕), 문향(文鄕))을 품은 글로컬 담양인 육성'을 주제로 담양교육의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지역 학교장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

올해 담양교육은 '청죽의 향기 품은 담양人'의 정신을 길러 세계로 향하는 글로컬 담양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주도성을 키우는 에듀테크 교육 및 공존과 상생의 지역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학생교육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사문학 향기 품은 독서인문교육과 생태아트 프로젝트, 담양 '의(義)' 정신이 깃든 지역사 교육 프로젝트 운영 등 가장 담양다운 교육을 실현할 방침이다.

이경애 담양교육장은 "2024년은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민, 담양군, 담양마을교육공동체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정기명 여수시장, 국비 확보 행보 '본격화'

행안부·기재부 방문 지원 요청

섬박람회 특별교부세 등 건의

정기명 여수시장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찾아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정기명 시장은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진선주 교부세과장, 조용범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황순관 경제예산심의관, 안상열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을 차례로 만나 분야별로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

이번 방문은 '글로벌 해양관광휴양도시' 및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지역현안 사업을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함에 있어 지방교부세 및 자체 세입 감소 등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비 확보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다.

먼저 행정안전부를 찾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지원 특별교부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기반시설 및 주차장 조성 공사 ▲주행사장 진입도로 확장 및 환경 정비 사업 ▲섬박람회장 주변 스마트 조명등 설치를 건의했다.

정 시장은 섬박람회 주행사장에 전기·통신 및 배수로 시설 등을 구축하고 주차장을 조성해 돌산읍 주행사장의 교통 체증 방지와 정체구간 해소 등은 성공적인 섬박람회 행사 운영을 위한 필수 사업임을 역설했다.

또 기획재정부를 찾아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광양(Ⅳ) 공업용수도 사업 ▲삼산면 장촌·죽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선소항 오염퇴적물 준설 및 정비사업 ▲여수시 조선소 집적화 대상지 준설사업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호남권역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등이다.

정기명 시장은 "주요 현안사업이 부처예산 편성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부 예산안 확정 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흥 하늘빛수목원서 튤립 축제 열린다

내달 5-21일…1천여종 초화류 식재

장흥군은 28일 "하늘빛수목원에서 오는 4월5일부터 21일까지 '제11회 튤립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늘빛수목원은 전남 제8호, 전국 22번째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수목원 안으로는 300여종의 수목과 1천여종의 초화류가 식재돼 있어 생태학습지와 가족 나들이 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튤립을 비롯한 1천여종의 꽃나무와 야생화가 꽃망을 터트려 화사한 봄 풍경을 그려낸다. 〈사진〉

하늘빛수목정원은 약 10만㎡ 규모에 편백숲, 생태연못, 글램핑장, 물놀이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흥=노형록 기자

고흥 홍보대사에 배우 김성환·야구선수 임호균

'우주항공 중심도시' 관광자원 홍보

고흥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성환(위)과 야구선수 임호균

고흥군은 28일 "27일 군수 집무실에서 배우 겸 가수 김성환과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임호균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배우 겸 가수는 1970년 TBC '아씨'와 1987년 KBS1 '토지' 등 수많은 작품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제19대, 제20대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한 1994년, 가요 '마지막 여자'를 발표하며 가수 활동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밥 한번 먹자' 히트에 이어 최신곡 '약장수'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임호균 전 야구선수는 1976년부터 국가대표 투수로 선발돼 1982년 서울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최고 방어율 상을 수상했으며, 1983년 삼미 슈퍼스타즈를 시작으로 롯데, 청보, 태평양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했다.

군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지붕 없는 미술관이자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고흥을 대내외에 적극 알림은 물론, 지역이 자랑하는 농수특산물과 함께 빼어난 관광자원을 홍보할 예정이다.

/고흥=최봉환 기자